

기획

후마의 목적지는 “종합적 세계관 갖추는 것”

미래교양리포트 : ① 후마의 어제와 오늘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 대학 교양 교육이 위기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4차 산업의 시대가 교양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교양 교육 또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당면한 현실 속에서 교양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 신문은 ‘미래교양리포트’를 준비했다. 앞으로 5회에 걸쳐 교양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써 내려가고자 한다. 이번 개강호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역사와 현 주소를 통해 미래 가치를 짚어 봤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0년 9월 17일, 우리나라 대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우리학교에서 발생했다. 바로 교양 교육 전문 단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설립이다. 실용적 학문으로 내달리던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우리학교는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 후마를 설립하고, 교양 교육 편제 개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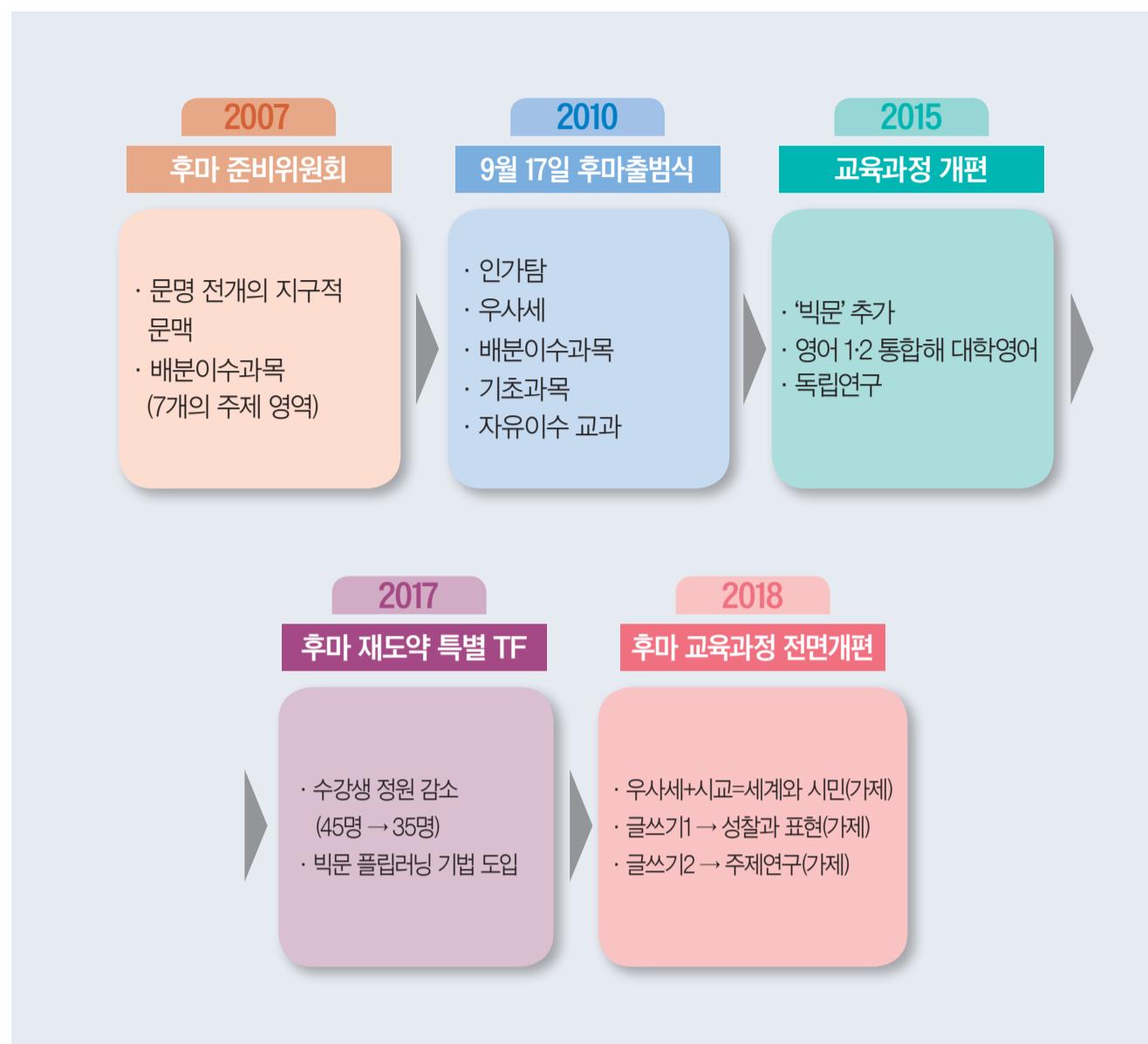
당시 중앙대는 전교생에게 회계과목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며 교양 교육의 방점을 취업에 두고 있었다.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실용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우리사회는 대학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학교는 달랐다. 실용적인 학문보다는 인문학을 중시하며 삶의 가치관 형성과 윤리적 책임, 봉사정신 함양에 교육의 가치를 뒀다. 보다 성숙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우리학교의 도전은 취업에 유리한 전공이 각광받던 시대 흐름 속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은 우리사회를 더 멀고 깊게 내다보며 어디에서라도 창조적이고 정직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취지 아래, 후마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실용적 학문보다

인문학을 중시한 후마

2007년부터 후마 준비위원회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1·2’를 비롯해 7개의 주제 영역 중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배분이수 과목 등 다채로운 교양 교육과정을 준비해왔다.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을 선도하는 교양 교육의 패러다임



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0년 9월 17일, 역사적인 후마 출범식에서 도정일 전 후마 대학장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설정하고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중핵과목은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1 : 인간의 가치탐색’,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2 :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대학 공동체가 공통의 지적 주제를 공유하고 탐구 경험을 갖게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교양 과목의 산만한 배치를 조정하고 과목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분이수과목’,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기초과목’,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지적 필요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생활과 관련된 주제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수교과’가 만들어졌다.

지난 2015년에는 후마 신설 이후 첫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뤄졌다. 과학을 주제로 신설된 제 3의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추가됐다. 또한 영어 1·2를 통합한 대학영어가 등장했다. 학생 스스로 교과 개발과 수행을 권장하기 위한 ‘독립연구’도 새로 얼굴을 비쳤다. 이에 더해 올해 초,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이 도입되며 지금의 후마가 완성됐다. 그리고 오는 2019학년도 1학기 후마가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지는 대다수 공감
교育 만족도는 불만족 68.6%

후마가 출범한지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지났다. 대학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도전과 많은 편제 개편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오늘날 우리학교 학생들은 후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신문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양 캠퍼스 학생 11,158명을 대상으로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258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현재 후마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 중 73.64%가 이러한 교육 목표에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26.36%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교육 목표에 공감하는 것과는 달리 교양 교육에 불만족하는 학생이 68.6%나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우리학교 교양 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수업 방식 및 교수법을 꼽았다. 과목 수, 교육 콘텐츠,

교수진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과목으로는 시민교육(26.74%)과 인간의 가치탐색(16.67%)이 꼽혔다. 신입생 세미나, 우리가 사는 세계, 빅뱅에서 문명까지 과목이 뒤를 이었다. 그 이유로 자신의 노력만큼 학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만족하는 과목으로는 27.91%가 선택한 배분이수를 필두로 글쓰기, 인간의 가치탐색이 뒤를 이었다. 듣고 싶은 과목이 다양한 분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배분이수에 만족하는 이유였다.

응답자의 38.37%는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 습득’을 교양 교육의 본질로 들었다. 다수의 교양 교육 전문가들도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 교육과 차별된 교양 교육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다. 후마 설립을 주도한 후마 도정일 전 대학장은 “전공이 한 학문만 깊게 가르친다면, 교양은 여러 학문 간 관계를 보고 이를 융합한다”고 말했다. 한국 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 역시 융합을 지향하는 교양 교육의 가치가 결국 ‘교육 본연의 가치’라고 말한다.

“교양은 전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세계관을 갖추어야 해”

교양 교육 전문가들은 융합적 사고가 함양되기 위해선 비판적 사고가 전제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각각에서 분석하는 법을 알면 자신에게 주어진 틀을 깨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는 궤를 같이 이룬다는 것이다. 도 전 대학장은 교양 교육의 목표에 대해 “학생들에게 전공을 넘어선 종합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교양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힌다”고 말했다.

교양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은 전공 교육과 다르다. 한국교양 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은 “한 분야를 심화하는 게 전공 교육이라면 교양 교육은 보편적인 지적능력을 함양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직업을 정년 때까지 고집했던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흥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양한 학문의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양 교육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영어 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Low-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7:45~8:45 (월, 목)	오후반 18:00~20:00 (목)	오후반 18:00~20:00 (목)	
레벨	Ted Talk / 초급·중급 이상		Ted Talk / 초급·중급 이상	Business English Skills Series / 중·고급 이상	
수강료	90,000원		90,000원	12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1 / 고급2		초급1	초급2	중급1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30 (월, 수)	오후반 18:00~19:30 (화, 목)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수강료			120,000원	CANTANDO	MOVIE SPEAKING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화, 목)	오후반 17:30~18:5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2018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1. 개요					
가. 훈련대상: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안성예비군훈련장(안성시 금석길 51(금석동)/네비케이션: 안성예비군훈련장 걸레)					
* 용인예비군훈련장 공사로 인하여 안성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됨 다. 훈련일시: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2. 훈련일자					
9월17(일)	○ 국제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9월18(월)	○ 체육대학				
9월19(화)					
9월20(수)	○ 전자정보대학·전자공학(3, 4학년)				
9월21(목)	○ 전자정보대학·전자공학(학년), 생체의공학 ○ 생명과학대학				
9월22(금)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3(토)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건축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4(일)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5(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6(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7(수)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8(목)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29(금)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30(토)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9월31(일)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1(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2(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3(수)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4(목)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5(금)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6(토)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7(일)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8(월)	○ 공과대학·환경학 및 환경공학, 화학공학 ○ 동서의과대학·동서의과대학				
10월9(화)					